

臟象論과 魚鳥走甲類에 대한 고찰

김종원 · 전수형 · 지규용 · 김경철 · 이인선 · 이광영¹ · 김규곤²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한의학연구소, 1: 경희 광영 한의원, 2: 동의대학교 데이터정보학과

Concepts on Appearance Diagnosis and Four HyungSang Types - Fish, Bird, Horse, and Turtle

Jong Won Kim, Soo Hyung Jun, Gyu Yong Ji, Kyung Chul Kim, In Sun Lee, Kwang Young Lee¹,
Kyu Kon Kim², Yong Tae Lee*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KyungHee Kwangyoung Oriental Clinic, 2: Department of Data InformationScience, Dong-Eui University

After a research on appearance diagnosis and fish, bird, horse, and turtle types, this study concluded as following. Appearance diagnosis is a technique that exams five jang organs by color and shape of eye, nose, mouth, and ear. Four HyungSang types-including fish, bird, horse and turtle types-are evaluated upon the external shape that are created while type of seed changes. Appearance diagnosis focuses on five jang organs. Four HyungSang types focus on external shape, but are eventually related to five jang organs. Thus, two different techniques possess a point in common; five jang organs. The assignment of nose, eye, ear and mouth to the Five elements varies between two techniques. On the viewpoint of formation, appearance diagnosis assigns them to metal-water-wood-fire-earth and movement, and four HyungSang types do to wood-fire-earth-metal-water and constitution. On the viewpoint of body/use and static/dynamic, appearance diagnosis assigns them to metal-water-wood-fire-earth and constitution, and four HyungSang types do to wood-fire-earth-metal-water and movement. If nose, eye, ear, and mouth are assigned by on four HyungSang types, which are based on external shape, the assignment can be utilized in diagnosis. If, however, they are assigned by appearance diagnosis, it can be focus on treatment. Five jang organs and six fu organs are affected by internal conditions because they are located inside of human body, while four HyungSang types are affected by external conditions because it deals with external shape. If a disease occurs in the developed part of the body, it would be difficult to be cured because four HyungSang types depend on external shapes.

Key words : appearance diagnosis(망진), HyungSang Medicine, fish, bird, horse and turtle types, Five elements(오행)

서 론

모든 생명체의 외부로 드러난 모습은 그 생명체 내부에 간
직된 기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孟子』에서 “안에 있으
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¹⁾고 하였고, 『靈樞·本藏』에서 밖
으로 發顯된 象을 보고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있다²⁾고 하였다. 인
체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五臟六腑의 상태가 외부의 여러 기관으
로 나타난다. 따라서 내부의 臟腑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외부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五臟六腑 상태를 類推해 볼 수 있다. 이를

한의학에서 臟象論이라 한다. 그 특징은 五臟을 주체로 하여 六
腑·五官·五體·五華 등 전신의 組織器官을 긴밀하게 연결함으
로써 有機的 整體가 형성된다는 점이다.³⁾

形象醫學에서는 인체를 形象에 따라 魚鳥走甲類, 精氣神血
科, 臟腑形象, 膽·膀胱體, 六經形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여
임상에 활용하고 있다. 魚鳥走甲類는 자연계의 수많은 동물들을
魚類, 鳥類, 走類, 甲類의 네가지 類形으로 歸納하고 사람의 모습
을 이에 배속하여 분류한 방법이다.

* 교신저자 :이용태,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8/10/26 · 수정 : 2008/11/26 · 채택 : 2008/12/05

1) 孟子附註解 坤: 대전, 學民文化社, 1989, p. 357. “有諸內 必形諸外”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15.
“視其外應, 以知其內藏, 則知所病矣.”

3) 朴贊園 編譯: 臟象學, 서울, 成輔社, pp. 22-23, 1992

그런데 魚鳥走甲類에 대한 임상활용을 보면 五臟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많다. 『芝山形象醫案』에서는 각 처방에 대한 적합한 形象을 제시하고 있는데, 『東醫寶鑑·五臟門』 처방중에 導赤散⁴⁾, 瀉心湯⁵⁾, 瀉白散⁶⁾, 補肺散⁷⁾, 六味地黃湯(丸 元)⁸⁾ 등 많은 처방을 魚鳥走甲類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또 형상학회에서 魚鳥走甲類를 설명할 때 五臟 중에 어떤 臟腑가 발달된 체질이라는 것을 書頭에 두어 강조하고 있다.⁹⁾ 따라서 五臟은 魚鳥走甲類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芝山¹⁰⁾은 臟象과 별도로 魚鳥走甲類의 形象체질을 주창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魚鳥走甲類는 臟象과 일정부분 겹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耳目口鼻에 대한 배속에 있어서 臟象과 魚鳥走甲類가 서로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은 왜 같이 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밝히고자 芝山 語錄을 중심으로 臟象과 魚鳥走甲類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본 론

1. 形象醫學에서 본 臟象論

臟象의 象은 形象이다. 藏은 인체 내부에 있는데 그 形象이 밖으로 드러나므로 藏象이라 한다.¹¹⁾ 다시 말하면 藏은 인체 내에 있는 형태구조를 갖춘 臟腑이고, 象은 외부로 드러난 內臟 機能活動의 徵象이다. 象은 藏의 外在의 反影이며, 藏은 象의 內在의 本質이다.¹²⁾ 즉 藏象論은 外在의 반응을 관찰하여 內臟을 파악하는 방법이다.¹³⁾

외부로 發顯된 徵象은 내재하는 臟腑機能의 변화를 반영하므로, 이는 인체의 건강을 판단하고 질병을 診斷, 治療하는 근거가 된다.¹⁴⁾

藏象이란 용어는 『素問·六節藏象論』에 최초로 기록이 보이며, 『內經』, 『難經』에서 臟象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체계가 마련¹⁵⁾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東醫寶鑑』에서는 기존 의학이론의 精髓를 聚集하여 五臟의 形象, 部位, 주관하는 時日, 物類, 大小, 傷證, 病證과 五臟病의 虛實, 間基, 治法에 대하여 상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¹⁶⁾

臟象學의 주요특징은 五臟을 주체로 하여 六腑·五官·五體·五華 등 전신의 組織器官을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有機的 整體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經脈의 絡屬作用에 의해 소통되고 氣血의 貫流로 상호 연결된다. 臟象學의 또 다른 특징은 인체내부의 유기적인 연결뿐 아니라 五行學說을 응용하여 자연계의 五方·五時·五氣·五化 등을 인체의 기능과 긴밀하게 연결 지어 인체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¹⁷⁾

形象醫學에서 바라본 臟象論도 一般韓醫學의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芝山은 五臟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既存 醫學理論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揭示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五臟의 生成 - 化成作用

芝山은 五臟六腑는 外에서 內로 收斂되어 형성되었다고 보았는데¹⁸⁾¹⁹⁾²⁰⁾, 이는 『內經』의 관점을 따른 것이다. 『內經·陰陽應象大論』에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이라 하였는데, 이는 五臟이 天地自然의 滋養을 받아서 생성되고 다시 그 氣가 외부로 發揚되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芝山은 이를 化成·生成作用이라고 하였다.

2) 五臟病의 診斷

五臟의 상태를 診斷할 수 있는 방법은 五官·五體·五華·五色 등 다양하지만 芝山은 色과 耳目口鼻의 大小·高低·剛柔·正偏으로 판단할 것을 주장하였다.²¹⁾²²⁾²³⁾²⁴⁾²⁵⁾²⁶⁾²⁷⁾²⁸⁾.

五臟은 神을 간직하고 있는데, 神은 色을 통해서 드러난다.²⁹⁾

그러므로 色을 통해서 五臟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또 『靈樞·本藏』에서 “五臟은 小大·高下堅脆·端正·偏傾이 있다”고 하였고,³⁰⁾ 『靈樞·五閱五使』³¹⁾에서 “五官은 五臟의 氣가 나타나는 곳이다”고 하였고, 『難經·十六難』에는 五臟의 內外證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芝山은 五臟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특히 色과 五官을 중시하여 色과 耳目口鼻의

4)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形象醫案, 서울, 芝山出版社, p. 400, 2003. 導赤散: 鳥類, 火性이 강한 사람, 上脣이 들려있거나 人中이 짧은 사람

5) 上揭書, p. 695. 瀉心湯: 鳥類, 神科, 面赤

6) 上揭書, p. 691. 瀉白散: 氣科, 甲類, 面白. 芝山은 “瀉白散은 특히 甲類가 기침을 하고 本病이 있을 때, 아침에 기침을 심하게 할 때 신통하게 잘 듣는다.”고 하였다.

7) 上揭書, p. 583. 補肺散: 甲類, 氣科, 肩大, 鼻翼動

8) 上揭書, p. 1119. 六味地黃湯(丸 元): 膽體, 精科, 魚類, 面黑, 顙骨大, 耳大焦枯, 口大, 頭大, 毛髮이 굵은 경우, 地閣이 약한 경우

9)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魚類는 신장위주인 체질로 입이 크거나 입술이 두툼한 편이며 피부가 검고 허리 엉덩이가 큰 경우가 많고, 鳥類는 심장위주로 된 체질로 눈이 돋보이고 입술은 작고 얇으며 얼굴이 붉고 새가슴인 경우가 많고, 走類는 간위주로 된 체질로 얼굴이 가름하고 코가 길며 얼굴이 푸른 경우가 많고 옆구리가 길며 팔다리가 쪽쪽 뻗어 있는 날씬한 체질이고, 甲類는 폐위주로 된 체질로 귀가 크고 얼굴이 희고 작진 경우가 많고 이마주름이 있고 어깨와 등이 크고 넓은 체질을 말한다.’

10) 故 朴仁圭 선생의 號이다. 芝山은 形象醫學을 主唱하였으며, 芝山先生 臨床學特講은 그가 弟子와 問答하고 臨床한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11) 張介賓 原著: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p. 46, 1986

12) 朴贊國 編譯: 臟象學, 서울, 成輔社, p. 25, 1992

13) 朴贊國 編譯: 臟象學, 서울, 成輔社, p. 25, 1992

14) 金完熙 撰編: 한의학이론, 서울, 傳統醫學研究所, p. 160, 1993

15) 『黃帝內經』에서는 藏象에 대한 기록이 자못 상세하다. 張介賓이 지

은 類經에 藏象類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東醫寶鑑·五臟門』에도 『內經』을 다수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알 수 있다. 『難經』에서는 五臟病을 診斷하는 중요한 단서인 內·外證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16) 許浚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 139-149, 1987

17) 朴贊國 編譯: 臟象學, 서울, 成輔社, pp. 22-23, 1992

18)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p. 367

19)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서울, 芝山出版社, p. 157

20) 上揭書, p. 160

21)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p. 200

22)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서울, 芝山出版社, p. 282

23) 上揭書, p. 120

24) 上揭書, p. 92

25)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p. 350

26) 八象論 III, p. 202

27)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서울, 芝山出版社, p. 157

28) 上揭書 p. 157

29) 許浚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 338, 1987. 色者 神之旗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13, 1985. 五藏者 有小大·高下堅脆·端正·偏傾者 六府 亦有小大·長短·厚薄·結直·緩急.

31) 上揭書, p. 186, 五官者 五臟之關也

大小·高低·剛柔·正偏으로 판단할 것을 주장하였다.³²⁾ 이와 같은 주장은 『內經』, 『難經』에 바탕을 두고 있고 『東醫寶鑑』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데, 五臟의 진단은 '色과 大小高低剛柔正偏으로 한다'는 주장은 五臟病 診斷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五臟病證 · 傷證

『東醫寶鑑·五臟六腑』를 보면 五臟病에 대한 증상을 病證과 傷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芝山은 五臟病證을 本病이라고 하였고, 本病은 類形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走類는 肝이 발달하였으므로 肝病에 잘 걸리게 되며, 이때 증상은 本病으로 나타난다. 傷證은 생활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생활에는 지켜야 할 법도가 있으며, 芝山은 '한의학은 생활의 법도를 指示한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활의 법도란 숨쉬고, 밥먹고, 일하고, 성생활하는 규율을 말한다. 사회에 법규가 있는데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듯이, 생활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五臟病이 발생하는데 五臟傷證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³³⁾³⁴⁾

4) 五臟病의 治療

芝山은 五臟病에 대한 用藥時에는 반드시 內證과 外證을 확인하고 投藥하도록 하였다. 外證은 五色과 五志를 중심으로 記述되었고, 內證은 배꼽을 중심으로 上下左右의 動氣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色은 五臟神이 발현된 것이고, 五志는 五臟에 간직된 것이므로 五臟病을 진단하는데 중요하다. 배꼽을 중심으로 動氣를 살피는 것은 배꼽이 河圖를 法해서 生成原理의 根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芝山은 『難經』의 五臟病의 內外證³⁵⁾을 토대로 五臟病 用藥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³⁶⁾³⁷⁾³⁸⁾³⁹⁾⁴⁰⁾

2. 魚鳥走甲類에 대한 考察

芝山은 인체는 形象, 臟腑, 身形, 經絡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는데, 形象는 다시 組織原理로 이루어진 精氣神血科와 成形原理로 이루어진 魚鳥走甲類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魚鳥走甲類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內經』의 5가지 動物類形

32) 芝山은 五臟의 상태를 혹은 '耳目口鼻의 大小·高低·剛柔·正偏' 혹은 '五臟의 大小·高低·剛柔·正偏'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五官은 五臟의 氣가 드러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靈樞·師傳』에서는 '肝은 目的 大小로, 心은 脈骨有餘로, 脾는 脣舌好惡으로, 肺는 巨肩陷咽으로, 腎은 耳의 好惡으로 판단한다'고 하였고, 『靈樞·本藏』에서도 이와 대체로 유사한데 '靑色小理者 肝小, 蠶理者 肝大'식으로 臟理로서 五臟의 大小를 파악하였다.

33)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서울, 芝山出版社, p. 367

34) 생활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五臟傷證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식생활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食傷證이나 酒內傷이 온다. 다만 여기서는 五臟病을 중심으로 볼 때, 생활의 법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傷證으로 나타남을 말한 것이다.

35) 滑壽原著: 難經本義, 台南, 莊家出版社, pp. 45-46, 中華民國73. 『難經』十六難 중에 肝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然, 是其病, 有內外證. 其病爲之奈何? 然, 假令得肝脈, 其外證, 善噦, 面靑, 善怒; 其內證, 臍左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 四肢滿閉, 淋瀝便難, 轉筋, 有是者肝也, 無是者非也.

36)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서울, 芝山出版社, p. 160

37)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p. 166

38)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 p. 158

39)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 p. 197

40) 上揭書, p. 312

한의학에서 동물을 특성에 따라 분류한 최초의 기록은 『內經』에서 찾을 수 있다. 『素問·五常政大論』에는 毛蟲, 羽蟲, 裸蟲, 介蟲, 鱗蟲 등 五類로 분류하고 五類는 六氣와 勝制關係에 따라 盛衰가 결정된다고 하였다.⁴¹⁾ 이러한 분류는 五行의 特性에 따른 분류방법으로 五類는 그 해 六氣의 영향을 받아 잘 자라거나 없어지기도 한다.⁴²⁾

『易學原理講話』에서는 土에 해당하는 裸蟲을 제외한 毛蟲, 羽蟲, 介蟲, 鱗蟲을 走類, 鳥類, 魚類, 甲類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였는데, 동물의 五行 屬性은 『內經』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2) 『類經圖翼』의 動物分類⁴³⁾

張介賓은 『類經圖翼』에서 木火土金水の 五氣와 東西南北의 四方에 따라서 동식물의 形態, 性情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그 중 동물을 보면, 五氣中에 木氣를 띤 동물은 角而仁柔하고 金氣를 띤 동물은 齒而剛利하고 火性者는 飛而親上하고 水性者는 潛而就下하고 土性은 靜而喜藏한다고 하여 동물의 性情을 木火土金水로 분류하였다.

方位에 따라서 西北之蟲은 鱗甲蟲인데 대부분 蟄藏하고, 東南之蟲은 羽毛蟲인데 上騰한다고 하여 方位에 따라 동물의 性情을 나누고 形態를 분류하였다.

3) 『易學原理講話』의 走鳥魚甲類

『易學原理講話』에서는 동물을 木火金水の 五行屬性에 따라 크게 走類, 鳥類, 魚類, 甲類의 네가지 類形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走類의 달리는 성질은 木의 直伸의 性을 띠고 있으며, 甲類가 등이 딱딱한 것은 金의 견고하고 높고 외부라는 성질을 띠고 있고, 魚類와 鳥類는 水火昇降의 성질에 비해 배속하였다.⁴⁴⁾

나아가 동물의 類別과 각 性能의 차이를 十段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七段에서는 耳目口鼻를 走鳥魚甲類에 배속하고 있다. 走類는 냄새를 잘 맡고 (草)木은 臭氣를 내며 코의 모양이 木의 象을 띠고 있으므로 코가 발달하고, 입은 안면의 제일 下部에 있으며 口內的 舌로 物味를 맛보며 물고기가 입을 항상 움직이므로 魚類는 입이 발달하고, 눈은 광선을 받아 物色을 보므로 火의 屬이고 火性을 띤 鳥類는 멀리까지 잘 볼 수 있으므로 鳥類는 눈이 발달하였고, 귀는 外形上 속은 좁고 외부는 耳郭이 둘러 있으며 高處하되 後面으로 引退하여 홀로 있는 것 등이 金의 象을 띠므로 甲類는 귀가 발달하였다고 보았다.⁴⁵⁾

결과적으로 코는 木에, 눈은 火에, 귀는 金에, 입은 水에 배속되어 한의학에서 臟象論의 五官의 배속과 차이를 나타낸다.

『內經』에도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五類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명칭만 있고 각 類形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易學原理講話』에서는 動物類形에 따른 性情, 行動樣式 등을 十段으로 분류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상세하고 구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p. 256-257, 1985. 帝曰 歲有胎孕不育, 治之不全, 何氣使然? 岐伯曰 六氣五類, 有相勝制也, 同者盛之, 異者衰之, 此天地之道, 生化之常也.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p. 256-257, 1985. 즉 「五常政大論」에 "厥陰司天, 毛蟲靜, 羽蟲育, 介蟲不成; 在泉, 毛蟲育, 裸蟲耗, 羽蟲不育"과 같은 것이다.

43) 張介賓: 類經圖翼, 大星文化社, p. 13, 1986

44)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東方文化, pp. 148-151, 1987

45) 上揭書, pp. 156-157

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Table 1. 走鳥魚甲類의 十段分類 圖表⁴⁶⁾

五行 類別	一段	二段	三段	四段	五段	六段	七段	八段	九段	十段
木 走類	毛	走行	足先動	肝大	多怒	聲大	鼻發達	多情	慧智	仁愛
水 魚類	鱗	潛下	尾先動	腎大	多恐	無聲	口發達	無情	直覺	能變
火 飛類	羽	飛上	肩先動	心大	多喜	多語	目發達	有情	理智	禮度
金 甲類	甲	隱伏	背先動	肺大	多哀	寡語	耳發達	有性	靈感	義貞

4) 形象醫學의 魚鳥走甲類

芝山은 『內經』에서 五行의 속성에 따라 동물을 분류한 五類理論, 『類經圖翼』에서 五行의 성질에 따라 동물의 性情과 形態를 분류한 理論,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易學原理講話』의 走鳥魚甲類에 대한 理論을 採用하여 사용하였는데, 특히 『易學原理講話』의 走鳥魚甲類에 대한 理論을 적극 활용하였다. 『易學原理講話』에서는 동물의 類形을 水火木金으로 분류하고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았으나, 芝山은 인체의 類形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사람은 동물이므로 十二支의 띠를 갖고 있고, 十二支는 申子辰 水局, 寅午戌 火局, 巳酉丑 金局, 亥卯未 木局의 水火木金 四局으로 나뉜다. 그러므로 사람은 水火木金의 動物類形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走鳥魚甲類를 인체에 적용하고 類形을 분류하였다.⁴⁷⁾

(1) 魚鳥走甲類는 化顯作用

芝山은 인간은 선천적인 종자가 바뀌어 새로운 형체를 이루는데 이러한 작용을 化顯作用이라 하였으며, 새로운 형체의 외형을 보고 발달한 부위에 따라 魚鳥走甲類로 분류하였다.

化顯作用이란 수정체가 變하여 人間이 되고,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는 것과 같이 種子가 바뀌어 有形有體가 되는 것을 말한다. 魚鳥走甲類는 十二支의 水火木金 四局理論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몸에서 해당부위가 발달한다. 그러므로 水에 속하는 魚類는 허리 엉덩이가 발달하고, 火에 속하는 鳥類는 가슴이 발달하고, 木에 속하는 走類는 옆구리와 팔다리가 발달하고, 金에 속하는 甲類는 등과 어깨가 발달한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나 몸집은 잘 볼 수 없으므로 얼굴을 보고 구분하기도 한다.⁴⁸⁾⁴⁹⁾⁵⁰⁾

(2) 魚鳥走甲類는 成形原理⁵¹⁾

芝山은 魚鳥走甲類는 成形原理로 이루어 졌다고 하였는데, 成形原理는 올챙이가 물에서 태어나 땅에 올라와서 개구리가 되고, 종자가 싹이 터서 根苗花實을 이루듯이 이미 자라서 成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父精母血이 합해져 만들어

진 수정체가 점점 자라서 사람의 外形을 이루는데, 형성된 外形 중에 어느 부위가 발달되었는가에 따라 魚鳥走甲類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芝山은 “太極이 兩儀가 되어 四象을 낳는 과정은 成形原理를 말한 것이다. 兩儀란 밖으로 드러난 模樣 즉 成形된 事實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水는 魚類에 속하고 火는 鳥類에 속하고 金은 甲類에 속하고 木은 走類에 속한다.”고 하였다.⁵²⁾⁵³⁾⁵⁴⁾⁵⁵⁾⁵⁶⁾⁵⁷⁾

(3) 魚鳥走甲類의 類形과 治法

존재물은 모두 矛盾이 있고 그에 따라 病理가 달라지는데, 芝山은 魚鳥走甲類의 類形과 그에 따른 治法을 제시했다. 즉 芝山은 走類는 코가 發達하여 냄새를 잘 맡고 얼굴이 길고 側面이 發達하고 다리가 발달하였으며, 鳥類는 눈이 발달하고 입이 작고 입술이 얇으며 새가슴이며, 甲類는 이마가 발달하고 등과 어깨가 넓으며, 魚類는 입이 발달하고 허리 엉덩이가 발달하였다고 하였다.

또 走類는 다리를 바탕으로 삼고 鳥類는 어깨가 발달하였으므로 走類가 다리에 병이 발생하거나 鳥類가 어깨에 병이 발생하면 難治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芝山은 類形에 따른 治法을 제시하였는데, 走類는 털이 많아 濕熱이 많은 체질이므로 本治는 清熱瀉濕이고, 鳥類는 다리가 약하고 火가 잘 뜨는 체질이므로 本治는 滋陰降火이며, 魚類는 本治가 補精補氣고, 甲類는 本治가 解鬱消痰이다.⁵⁸⁾⁵⁹⁾⁶⁰⁾⁶¹⁾⁶²⁾⁶³⁾⁶⁴⁾

(4) 魚鳥走甲類와 五運六氣

芝山은 魚鳥走甲類는 五運六氣의 영향을 받아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魚鳥走甲類는 선천적으로 이미 種子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어 類形이 정해졌지만, 또한 후천적으로 五運六氣의 영향을 받아 형태가 변해간다. 즉 감자 씨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긴 하지만, 똑 같은 감자 씨를 심어도 지역에 따라 감자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⁶⁵⁾⁶⁶⁾⁶⁷⁾

3. 臟象論과 魚鳥走甲類의 五官 配屬

1) 臟象論과 魚鳥走甲類의 五官 配屬의 차이

臟象論에서는 耳目口鼻面(舌)을 오장에 배속하였다. 코를 肺의 物類에 배속하였는데, 走類는 肝이 발달하고 코가 발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臟象論에서는 코가 肺金에 속하지만, 魚鳥走甲類에서는 코가 肝木에 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臟象論에서 코·눈·귀·면(설)·입에 대한 五行은 金木水火土로 배속되었는데, 魚鳥走甲類에서는 木火金土水로 배속되어 서로 다르다.

46) 上揭書, p. 150

47)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p. 311. 사람은 動物이니까 十二支로 본다. 十二支를 통해서 그 類形을 追究해야 한다. 類形이 各各 다르다. 하지만 申子辰은 水局인데, 水局 그 自體의 形態가 發達되어 있다. 즉, 앞이 發達되어 있는가 아니면 뒤가 發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科類가 定해진다.

48)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Ⅰ, 서울, 芝山出版社, p. 202

49) 上揭書, p. 157

50)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Ⅰ, 서울, 芝山出版社, p. 367

51) 成形原理는 組織原理와 對比되는 것으로 아직 어린종자는 組織原理에 해당하고, 이미 成體가 되어 크고 단단한 모습은 成形原理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一物의 兩面性으로 表裏, 剛柔의 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예로 精氣神血科은 組織原理에 해당하고, 魚鳥走甲類는 成形原理에 해당한다.

52)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Ⅶ, 서울, 芝山出版社, p. 281

53) 上揭書, p. 284

54) 上揭書, p. 77

55) 上揭書, p. 284

56) 上揭書, p. 294

57) 上揭書, p. 281

58)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p. 66

59)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Ⅱ, 서울, 芝山出版社, p. 349

60) 上揭書, p. 381

61) 上揭書, p. 126

62) 上揭書, p. 22

63) 上揭書, p. 60

64) 上揭書, p. 102

65)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Ⅶ, 서울, 芝山出版社, p. 293

66) 上揭書, p. 95

67) 上揭書, p. 96

五官을 중심으로 보면 五官은 五臟의 氣가 나타나는 곳이므로 臟象論에서는 五臟의 氣운이 五官을 통하여 외부로 發顯되어 나오는 것이요, 魚鳥走甲類에서는 外의 형태가 內의 기능을 담고 있으므로 五官의 外形은 五臟의 기능을 감싸고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⁶⁸⁾.

五行을 배속해 보면 腎구멍으로는 肺臟의 氣운이 나오므로 金에 속하고, 口의 外形은 肝氣가 쌓아서 形을 이루므로 木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五官生成의 관점에서 보면 臟象論에서 口·눈·귀·면(설)·입을 金木水火土에 배속하는 것은 氣, 機能, 運行 및 七竅의 의미로 말한 것이고, 魚鳥走甲類에서 口·눈·면(설)·귀·입을 木火土金水에 배속하는 것은 形, 構造, 組織 및 形態의 의미로 말한 것이다⁶⁹⁾⁷⁰⁾⁷¹⁾⁷²⁾⁷³⁾.

2) 臟象論과 魚鳥走甲類의 組織·運行

耳目口鼻의 組織·運行을 설명함에 있어 형태를 조직으로, 기능을 운행으로 보면, 오관의 오행 배속에서 臟象論에서 口·눈·귀·면(설)·입을 金木水火土에 배속하는 것은 運行에 해당하고, 魚鳥走甲類에서 口·눈·면(설)·귀·입을 木火土金水에 배속하는 것은 組織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산은 반대의 견해를 다시 제시하였는데, 臟象論은 組織에 해당하며, 魚鳥走甲類는 運行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바⁷⁴⁾, 즉 口·눈·귀·면(설)·입을 金木水火土에 배속하는 것은 組織에, 口·눈·면(설)·귀·입을 木火土金水에 배속하는 것은 運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體用·動靜을 중심으로 組織과 運行을 나누고, 耳目口鼻에 五行을 배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動靜은 '서서 활동할 때와 누워서 쉴 때'의 모습을 연상해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魚鳥走甲類는 발달된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본 것이므로 '서서 활동할 때 모습(用)'이며 動的이고 運行에 해당한다. 서서 활동할 때 모습을 보면 귀가 제일 위에 위치하게 되는데 인체에서는 肺가 제일 上部에 위치하므로 귀가 肺金에 배속되고, 다음이 눈이므로 心火에, 그 다음이 코이므로 肝木에, 입이 가장 낮은 곳에 있어 腎水에 배속되어 결과적으로 口·눈·면·귀·입이 木火土金水에 배속된다.

반면 臟象論의 五臟은 주로 저장하고 간직하는 기능을 하므로 '누워서 쉴 때 모습(體)'이며 靜的이고 組織에 해당한다. 누워 있을 때 모습을 보면 코가 제일 위에 위치하는데 인체에서는 肺가 제일 上部에 위치하므로 코가 肺金에 배속되고, 다음이 입이므로 心火에, 그 다음이 눈이므로 肝木에, 맨 밑에 있는 귀는 腎水에 해당하게 되어 口·눈·귀·면·입이 金木水火土에 배속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芝山은 臟象論은 金木水火土로 보고 組織에 해당하고, 魚鳥走甲類는 木火土金水로 보고 運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⁷⁵⁾⁷⁶⁾⁷⁷⁾⁷⁸⁾.

총 관

1. 臟象論

이상에서 臟象論과 魚鳥走甲類에 대하여 芝山의 語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총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臟象論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체 내부에 있는 五臟은 그 氣운을 외부로 發顯하는데, 외부로 發顯된 象을 보고서 내부의 五臟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臟象論이다. 한의학에서 萬物은 天地의 交습으로 생성된다고 보았듯이, 五臟도 天地自然의 氣운을 收斂하여 생성되고 五臟의 氣운은 다시 외부로 發揚하여 耳目口鼻 등을 형성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이라 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東西南北의 四方에서 天의 六氣인 風寒暑濕燥火가 생기고, 하늘의 氣운은 다시 땅의 氣운인 五行을 생성하며, 땅의 氣운은 五味를 생성하여 사람의 근원인 五臟을 생성하고, 五臟의 氣운은 다시 외부의 耳目口鼻로 發揚됨을 보여주고 있다. 五臟의 氣운은 또한 色으로 發顯된다. 五臟은 神을 藏하고 있는데, 神의 상태는 色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芝山은 色과 耳目口鼻의 大小·高低·剛柔·正偏으로 五臟을 診斷할 것을 강조하였다.

『東醫寶鑑·五臟六腑』를 보면 五臟病에 대한 증상을 病證과 傷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芝山은 五臟病證을 本病이라고 하였고, 本病은 類形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走類는 肝이 발달하였으므로 肝病에 잘 걸리게 되며, 이때 증상은 本病으로 나타난다. 傷證은 생활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생활에는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데, 芝山은 '한의학은 생활의 법도를 指示한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활의 법도란 숨쉬고, 밥먹고, 일하고, 성 생활하는 규율을 말한다.

芝山은 五臟病에 반드시 內證과 外證을 확인하고 五臟門의 처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外證은 五色과 五志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內證은 배꼽을 중심으로 上下左右의 動氣를 확인하는 것이다. 色은 五臟神이 발현된 것이고, 五志는 五臟에 간직된 것이므로 五臟病을 진단하는데 중요하다. 배꼽을 중심으로 動氣를 살펴보는 것은 배꼽이 河圖를 法받아 生成原理의 根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芝山은 『內經』의 오장 진단법과 『難經』의 五臟病의 內外證⁷⁹⁾에 대한 이론을 중시하여 이를 중심이론으로 받아들여 五臟病 用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68)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東方文化, pp. 156-157, 1987

69)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p. 359

70)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p. 361

71)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p. 22

72)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p. 22

73)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p. 76

74) 芝山은 魚鳥走甲類가 運行에 해당한다고 직접 언급한 語錄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精氣神血은 形을 爲主로 보며 運行인 木火土金水로 본다'(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p. 134)고 하였고 '精·氣·神·血은 形이며 魚, 走, 鳥, 甲을 나타낸다.'(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p. 169)고 하였으며 '精은 魚類요, 氣는 甲類요, 神은 鳥類이며, 血은 走類로 發顯된 것이다.'(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I, p. 279)고 하였으므로 魚鳥走甲類를 精氣神血科와 함께 運行으로 볼 수 있다.

75)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서울, 芝山出版社, p. 129

76) 上揭書, p. 129

77)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서울, 芝山出版社, p. 94

78)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p. 57

79) 滑壽原著: 難經本義, 台南, 莊家出版社, pp. 45-46, 中華民國73. 「難經」十六難 중에 肝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然, 是其病, 有內外證. 其病爲之奈何? 然, 假令得肝脈, 其外證, 善渴, 面青, 善怒; 其內證, 臍左有動氣, 按之牢者痛; 其病, 四肢滿閉, 淋瀝便難, 轉筋, 有是者肝也, 無是者非也.

2. 魚鳥走甲類

다음으로 魚鳥走甲類에 대하여 총괄하면 아래와 같다.

事物의 형성을 보면 먼저 외부의 모양이 형성되고, 이후에 내부의 組織이 채워진다. 예로 실익은 반송이를 보면 외부의 겉질은 형성되었지만 속의 알맹이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사람도 내부의 五臟이 만들어지기 전에 외부의 형틀이 먼저 만들어지게 된다. 외부의 형틀을 보고 인체를 분류하는 것이 走鳥魚甲類이므로 魚鳥走甲類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芝山은 『內經』에서 五行의 속성에 따라 동물을 분류한 五類理論, 『類經圖翼』에서 五行의 성질에 따라 동물의 性情과 形態를 분류한 理論,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易學原理講話』의 走鳥魚甲類에 대한 理論을 採用하여 사용하였는데, 특히 『易學原理講話』의 走鳥魚甲類에 대한 理論을 적극 활용하였다. 사람은 동물이므로 十二支의 띠를 갖고 있고, 十二支는 申子辰 水局, 寅午戌 火局, 巳酉丑 金局, 亥卯未 木局的 水火木金四局으로 나뉜다. 그러므로 사람을 水火木金의 動物類形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走鳥魚甲類를 인체에 적용하고 類形을 분류하였다.⁸⁰⁾

芝山은 魚鳥走甲類는 化顯作用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선천적인 종자에서 바뀌어 새로운 형체를 이루는데, 이러한 작용을 化顯作用이라 한다. 즉 수정체가 變하여 人間이 되고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는 것과 같이 種子가 바뀌어 有形有體가 되는 것을 말한다.

芝山은 魚鳥走甲類에는 成形原理가 들어 있다고 하였다. 成形原理는 올챙이가 물에서 태어나 땅에 올라와서 개구리가 되고, 종자가 싹이 터서 根苗花實을 이루듯이 이미 자라서 成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父精母血이 합쳐져 만들어진 수정체가 점점 자라서 사람의 外形을 이루는데, 형성된 外形 중에 어느 부분이 발달되었는가에 따라 魚鳥走甲類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易學原理講話』에서 魚鳥走甲類는 자연계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공통점을 찾아 魚類, 鳥類, 走類, 甲類의 네 가지 類形으로 歸納시켜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芝山은 이를 인체에 적용하여 種子가 외부로 發顯되어 成體를 이루는데 그 중에서 발달된 부위를 보고 분류한 것이다.

走類는 코가 發達하여 냄새를 잘 맡고 얼굴이 길고 側面이 發達하고 다리가 발달하였으며, 鳥類는 눈이 발달하고 입이 작고 입술이 얇으며 새가슴이며, 甲類는 이마가 발달하고 등과 어깨가 넓으며, 魚類는 입이 발달하고 허리 엉덩이가 발달하였다.

芝山은 魚鳥走甲類는 자기에게 맞는 산천초목의 환경(居位)에 살고 있으며,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병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魚鳥走甲類는 外形을 보고 구분한 것으로 時間, 空間, 場所, 方位 등 外的與件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魚類는 바닷가에, 鳥類는 하늘에, 走類는 평지에, 甲類는 해변에 살고 있으므로 사람도 자기에게 맞는 환경에 살아야 한다. 예를 들면 鳥類는 높은 곳에 살고, 魚類는 낮은 곳에 살아야 환경에 맞게 사

는 것이다.

芝山은 魚鳥走甲類의 居位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체질에 따른 居處를 제시하였다.

魚鳥走甲類는 선천적으로 이미 種子속에 유전정보가 들어 있지만, 또한 후천적으로 五運六氣의 영향을 받아 형태가 변해간다. 즉 감자 씨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긴 하지만, 똑 같은 감자 씨를 심어도 지역에 따라 감자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3. 臟象論과 魚鳥走甲類에 대한 比較

耳目口鼻에 대한 배속을 살펴보면 臟象論에서 코·눈·귀·면(설)·입에 대한 五行은 金木水火土로 배속되었는데, 魚鳥走甲類에서는 코·눈·면(설)·귀·입의 배속을 木火土金水로 되어 서로 다르다. 그것은 앞서 臟象論과 魚鳥走甲類의 組織·運行을 설명한 것과 같이 五官生成의 관점에서 臟象論은 氣, 運行, 機能으로 보고, 魚鳥走甲類는 形, 組織, 構造로 보았기 때문이다. 코를 예로 들면 콧구멍은 肺臟의 기운이 나오므로 金에 속하고, 코의 外形은 肺氣를 담고 있는 外形으로 木의 象을 나타내므로 木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臟象論은 金木水火土로 보고 組織에 해당하며, 魚鳥走甲類는 木火土金水로 보고 運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體用·動靜을 중심으로 組織과 運行을 나누고, 耳目口鼻에 五行을 배속하였기 때문이다. 魚鳥走甲類는 발달된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본 것이므로 서서 활동할 때 모습(用)이며 動的이고 運行에 해당하며 코·눈·면(설)·귀·입은 木火土金수에 배속된다. 반면 臟象論의 五臟은 주로 저장하고 간직하는 기능을 하므로 누워서 쉴 때 모습(體)이며 靜의이고 組織에 해당하며 코·눈·귀·면(설)·입은 金木水火土에 배속된다. 그러므로 芝山은 臟象論은 金木水火土로 보고 組織에 해당하고, 魚鳥走甲類는 木火土金水로 보고 運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⁸¹⁾⁸²⁾⁸³⁾⁸⁴⁾

臟象論은 五臟이 주체가 되고, 魚鳥走甲類는 外形이 주체가 되지만 이 외형은 담고 있는 오장과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결국 五臟과 연계된다. 그러므로 魚鳥走甲類를 발달된 외형을 특징으로 살펴보면, 어류는 허리(엉덩이)의 발달을 특징으로 하므로 신장과 관련되고, 조류는 가슴 발달을 특징으로 하므로 심장과 관련되며, 주류는 엽구리 발달을 특징으로 하므로 간장과 관련되며, 갑류는 등 발달을 특징으로 하므로 폐장과 관련되어, 발달된 外形에 病이 잘 걸리지만, 관련된 五臟에도 病이 잘 걸리게 되므로 走類는 肝臟病, 鳥類는 心臟病, 甲類는 肺臟病, 魚類는 腎臟病이 잘 걸리게 되어 五臟에 대한 處方을 쓰게 된다. 즉 臟象論과

81)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p. 129

82) 上揭書, p. 129

83)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Ⅱ, 서울, 芝山出版社, p. 94

84)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Ⅳ, 서울, 芝山出版社, p. 57

85) 논의 전환은 肝과 心의 기능과 연관이 많은데, 이것은 肝藏血, 心生血하는 血循環系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86) 洪元植: 棟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 25. 故善治者, 治皮毛. 其次治肌膚, 其次治筋脈, 其次治六府, 其次治五藏, 治五藏者, 半死半生也.

87) 八象論, p. 95.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모르는 醫師는 資格이 없고(五臟六腑門 醫當識五臟六腑 - 內的條件) 五運六氣, 則 어떻게 커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모르는 醫師도 資格이 없다(天地運氣門 醫當識天地間運氣 - 外的條件).

80)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p. 311. 사람은 動物이니까 十二支로 본다. 十二支를 통해서 그 類形을 추적해야 한다. 類形이 各各 다르다.

魚鳥走甲類는 五臟이라는 교집합이 있으므로 五臟門 處方을 같이 쓸 수 있다.

魚鳥走甲類는 외부의 형태를 위주로 보며 五臟도 이에 배속된다. 耳目口鼻와 몸통 및 五臟의 배속에 대하여 走類를 예를 들면, 走類는 몸은 엽구리가 발달하고 얼굴에서는 코가 木象으로 길쭉하게 발달한 유형을 말한다. 그러므로 走類는 코가 발달하고 엽구리가 발달하여 肝-脇의 관계에 따라 肝病에 잘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臟象論의 屬物類처럼 코가 肝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魚鳥走甲類에서 耳目口鼻와 五臟은 대등한 並立關係로 볼 수 있다.

반면 臟象論은 五臟이 위주가 되고 외부의 조식기관이 五臟에 배속된다. 耳目口鼻로 볼 때 肺의 기운이 코로 드러나므로 코가 肺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臟象論에서 耳目口鼻는 五臟에 從屬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臟象論은 五臟의 기운이 耳目口鼻로 發顯된 것이므로 形態보다는 機能的인 면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코의 기능이 좋지 않아 鼻塞症이 생겼을 때 肺와 연관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귀에서 발생하는 耳鳴 難聽도 肺보다는 腎과 연관되는 경우가 더 많다. 口舌의 질환도 心脾의 영향이 훨씬 많다. 눈의 질환은 陰血이 부족하고 火에 의해서 발생하므로⁸⁵⁾ 肝病 처방인 四物湯에 加減하여 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治療時에는 臟象論의 耳目口鼻의 病證과 臟腑를 연결시켜 보는 것이 有用하다.

반면 魚鳥走甲類는 외과 형틀을 보고 나는 것이므로 耳目口鼻의 外形을 보고 五臟 중에 어느 臟器에 病이 쉽게 올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다. 外形은 쉽게 보이지만, 機能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診斷時에는 魚鳥走甲類로 분류하는 것이 有用하다.

治療에 있어서 『內經』에서 '五臟은 인체의 가장 내부에 있기 때문에 病에 걸리면 難治'라고 보았다.⁸⁶⁾ 그런데 類形으로 볼 때 魚鳥走甲類는 外形을 보고 구분한 것이므로 발달된 부위가 病에 걸리면 難治에 해당한다. 즉 다리가 발달한 走類가 다리에 病이 발생하거나, 날개가 발달한 鳥類가 어깨에 病이 발생하면 難治에 해당한다. '五臟病은 難治'라는 한의학 이론과 별도로 動物類形에 따라 차별적으로 豫後를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인체는 內的, 外的與件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五臟六腑는 인체내에 위치하므로 숨쉬고, 일하고, 밥먹고, 성생활하는 內的與件의 영향을 많이 받고, 魚鳥走甲類는 外形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時間, 空間, 場所, 方位의 外的與件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⁸⁷⁾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芝山은 生成原理上, 臟象論에서 五臟六腑는 化成作用에 의한 생성으로, 오장육부의 대소, 정령, 강유, 고저가 주요 관점이며, 魚鳥走甲類는 化顯作用에 의한 형성으로 인체의 발달된 몸통

을 특징으로 하는 분류로서 오장과 오장을 담고 있는 의형이 주요 관점이라고 하였다. 코·눈·귀·입·면(설)에 대한 五行配屬에서 五官形成의 관점에서 臟象論은 金木水火土로 배속하고 氣, 運行, 機能으로 보며, 魚鳥走甲類에서는 木火土金水로 배속하고 形, 組織, 構造로 보았다. 반면 體用·動靜의 관점에서 보면 臟象論은 金木水火土로 組織에 해당하며, 魚鳥走甲類는 木火土金수로 運行에 해당한다. 診斷上 臟象論은 五臟을 주체로 하므로 色과 耳目口鼻 등의 象을 보지만, 魚鳥走甲類는 五臟을 담고 있는 外形이 主體가 되므로 오장과 의형의 관계를 본다. 따라서 臟象論과 魚鳥走甲類는 五臟이라는 교집합을 갖게 되고, 魚鳥走甲類는 발달된 五臟에 病이 잘 걸리게 되므로 五臟門의 처방을 쓸 수 있다. 臟象論은 五臟六腑 각각의 대소, 정령 강유, 고저에 따른 기능과 숨쉬고, 일하고, 밥 먹고, 성 생활하는 內的與件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오장의 상증, 병증 및 허실증이 진단의 요점이 된다.

魚鳥走甲類는 外形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오장과 의형의 관계에 따라 발달된 부위 및 外的與件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오장기 병증이 진단의 요점이 되며, 또한 발달된 부위가 病에 걸리면 難治에 해당한다고 본다. '五臟病은 難治'라는 한의학 이론과 별도로 動物類形에 따른 豫後를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Grant No. B070022)"

참고문헌

1. 許浚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2. 朴贊國 編譯. 臟象學. 서울, 成輔社, 1992.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5. 孟子附諺解 坤. 대전, 學民文化社, 1989.
6. 張介賓 原著.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6.
7.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86.
8. 金完熙 撰編. 한의학인론. 서울, 傳統醫學研究所, 1993.
9.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서울, 東方文化, 1987.
10. 滑壽原著. 難經本義. 台南, 莊家出版社, 中華民國73.
11.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12.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13.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14.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5.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6.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7.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II. 서울, 芝山出版社, 1999.
18.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形象醫案. 서울, 芝山出版社, 2003.